

북한 ‘속도전청년돌격대’에 관한 연구

김종수*

- I. 서론
- II.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창립과 운영
- III.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역할
- IV.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성과와 한계
- V. 결론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운영체제, 활동의 성과와 한계 등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북한체제의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시대 청년들은 북한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들은 노동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북한의 유일한 청년 대중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상설적인 경제건설 조직인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운영하고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5년 김정일의 지도로 설립된 후 국가 주요 기간시설과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 청년들은 ‘청년영웅도로’ 건설 사업에 매달려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도 단순히 청년들을 동원하는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김정일 권력의 핵심기반이 되고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군대와 같은 조직체제와 규율을 통해 청년들을 통제·교양하여 당

*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의 ‘전위’로 육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주제어: 청년동맹, 사로청, 속도전청년돌격대

I. 서론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국가목표를 ‘경제강국’ 건설로 설정하고, 전국가적 힘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을 것을 촉구하였다.(로동신문 07/01/01, 1) 신년사설 밝힌 구상에 대해 청년들이 제일 먼저 태천4호청년발전소 완공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김정일은 청년돌격대가 주축이 되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전력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기에 혁명위업이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청년들을 고무하였다.(조선중앙통신 07/01/23) 또한 태천4호청년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청년들의 정신, 즉 불굴의 투쟁기풍과 결연한 의지를 ‘태천의 기상’으로 개념화하여, 전국의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태천의 기상’을 따라 배워 ‘경제강국’ 건설을 앞당겨 나갈 것을 호소하였다.(로동신문 07/01/27)

이와 같이 북한의 선군정치시대 청년들¹⁾은 북한경제를 이끌어

1)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자질로 인해 사회주의건설 사업을 펼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자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피곤과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청년들의 고유한 특징이다. 청년들은 또한 큰 담력과 투쟁력,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튼튼한 육체적 준비와 훌륭한 기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개조의 선구자, 가장 적극적인 담당자로 되고 있으며 혁명역량 가운데 생기있고 전투력 있는 부대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손기하 1986, 39.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들은 노동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북한의 유일한 청년 대중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상설적인 경제건설 조직인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운영하고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5년 김정일의 지도로 설립된 후 국가 주요 기간시설과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03/08/27)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 청년들은 ‘청년영웅도로’ 건설 사업에 매달려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구소련의 콤포스몰이나 중국 문화혁명시기의 홍위병 조직에서 잘 드러나듯이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청년층을 장악하고 이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지배권력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도 단순히 청년들을 동원하는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김정일 권력의 핵심기반이 되고 있다.(최봉대 2001, 9)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군대와 같은 조직체계와 규율을 통해 청년들을 통제·교양하여 당의 ‘전위’로 육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운영체제, 활동의 성과와 한계 등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북한체제의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창립되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방법 및 새터민들에 대한 구술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실물경제 지표에서 청년들의 실제적인 생산한 양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II.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창립과 운영

1. 창립 배경과 의미

해방 후 북한은 사회체제 개혁을 통해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공업생산량을 복구하여 해방 전 생산 수준에 도달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1960, 45) 이러한 상황은 우선 활용 가능한 방법인 노동력의 집중적 활용으로 옮겨갔으며 “파괴된 인민경제를 하루빨리 복구 발전시켜야 할 어렵고 절박한 과업의 성과적 해결”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채종완 1990, 67)

1947년 세계민청대회를 계기로 함경북도 궁심탄광에서 청년작업반이 처음 조직된 이후 공장, 기업소 등 산업현장에서 청년들의 동원조직인 청년작업반²⁾이 결성되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청작업대’가 있는데, 이것은 초급단체 또는 면·군별 등 단위에 따라 청년들이 독자적인 작업반을 편성하여 활동하는 청년들의 노력동원 조직이다.(국사편찬위원회 1996, 86) 이 민청작업반은 1946년 보통강개수공사에 처음 조직, 동원되어 청년돌격대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돌격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기한의 단축, 조직력의 과시, 규율 확립을 통해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최봉대 2001, 12)

2) 작업반은 “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직종 또는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진 생산자들이 공동적으로 노동하는 기업소 내부의 말단 생산단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70, 434.; 홍남비료공장에서 처음으로 청년작업반이 조직되었다는 자료가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들이 없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후복구 시기 청년돌격대운동은 ‘전투화’가 시도되었다. 동원의 ‘전투화’라는 것은 청년들의 노력 동원이 군사적 편제와 용어, 규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954년 11월 청년들의 전투적인 동원 조직인 ‘수도청년복구대’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1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전문학교 학생³⁾들이 참가하여 만들어졌다. ‘수도청년복구대’는 각 대학과 고등전문학교들이 복구대의 기본 단위가 되며, 학부·학년·학급이 대대·중대·소대로 군대조직 체계를 갖추었다.(채종완 1990, 72~73) 청년들의 경제적 노력 동원이 작업 전투가 되며, 소대·중대·대대의 작업 편제는 개인별·집단별 경쟁을 용이하게 하며, 경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동 규율이 효과적으로 침투되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서는 ‘속도전’이 대중운동의 형식으로 일반화되었다. ‘속도전’은 1970년에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김정일에 의해 제창되었던 일종의 새로운 방침이었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불과 40여일 만에 시나리오부터 연출과 음악 등의 모든 것을 끝낸, 말 그대로 ‘속도전’이었다. ‘속도전’은 “혁명과 건설의 전진운동을 저해하는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담보를 배격하고 혁명과업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완수하게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85, 89)

3) 고등전문학교는 1953년 8월 내각회의에서 전후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내각결정 129호에 의해 설치된 학교로 기술전문학교(3~4년제), 야간기술전문학교(3~4년제)가 있었다. 1954년에는 82개의 각종 기술전문학교들에 3만 6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61년에 발간된 통계 자료에는 1953~1954년에는 학생수 통계 자체가 없으며, 1956~1957년에 가서야 2천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북한의 공간 자료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후 복구를 시작하는 해인 1953년도 내각 결정을 곧바로 실행하여 다음 해인 1954년에 3만명 규모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경제 여건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판단된다. 강근조 1991, 89.; 국가계획위원회 중앙 통계국 1961, 167.

‘속도전’을 실제 경제활동에 처음 구현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대건설 투쟁에서의 속도전”인 ‘70일 전투’이다.(탁진 외 1984, 131) 6개년계획(1971~1976년)의 중간 해인 1974년 10월 당시 경제계획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했다. 1974년 연간 계획을 완수해야만 6개년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일은 전당이 총돌격전을 벌여야지만 1974년의 ‘긴장한’ 계획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월 21일부터 ‘70일 전투’⁴⁾에 돌입하였다. 전투 결과 공업생산이 이전 시기보다 평균 1.7배 높아졌으며, 서부지역의 탄광들의 하루 석탄 생산량이 5배 증가하였다.(백치봉 외 1999, 21)

이에 김정일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역사적 진군이 개시된 1970년대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돌격대운동을 적극화”하기 위해 속도전청년돌격대를 1975년 5월 16일 창립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종래의 청년돌격대와 의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청년돌격대로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성격과 임무, 규모와 조직체계, 돌격대원의 선발원칙까지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청년운동의 전통인 ‘돌격대’와 김정일이 창조한 대중운동 방식인 ‘속도전’의 결합이다. 즉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기한의 단축, 조직력의 과시, 규율 확립을 통해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최봉대 2001, 12)하는 ‘돌격대’와 “최단 기간 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속도전’(연형묵 1976, 20)이 결합한 것이다.

4) ‘70일 전투속도’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속도가 되어 이후 ‘80년대속도’, ‘90년대속도’ 그리고 최근의 ‘천리마속도, 강행군속도’로까지 이어질만큼 공식화된 경제방식으로 되었다. 이정철은 ‘70일전투’에서 김정일이 의도한 것은 일상화된 관료들에게 본대를 보이자는 것이었고 또한 자신이 맡고 있는 당 조직이 경제를 맡아서 어떻게 해나가는에 대해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정철 2002, 130.

청년돌격대가 ‘속도전청년돌격대’⁵⁾로 변화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의 노력동원의 일상화, 전투화 확립⁶⁾이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 국제 정세를 미국의 ‘평화전략’과 함께 아시아 지역 특히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쟁 위협에 맞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주의대전설’ 방침을 정하고 6개년계획을 완수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대전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 빨리 밀고 나가는 ‘속도전’이 나오게 된 것이다.(백치봉 외 1999, 18)

둘째, 비핵심 청년들에 조직적 통제수단으로 청년돌격대를 상설화하여 엄격한 규율로 이들의 생활을 통제함으로써 체제 순응적 청년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로 정식화되기 전에 청년돌격대는 사로청의 임시조직이었다.(백남룡 2002, 362) 이로 인해 청년돌격대원들이 임시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청

5) 백남룡의 소설 『계승자』의 시대적 배경이 1973~1975년까지로,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권력의 계승자인 김정일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계승할 청년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도하였는가가 중심 내용이다. 이 작품을 통해 사로청 간부의 세대교체, 권력 승계과정에서의 사로청의 핵심 임무, ‘속도전청년돌격대’ 결성의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파악할 수 있다. 백남룡 2002; 북한 문학에서 김정일을 형상한 문학을 ‘수령형상문학’이라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4·15문학창작단’이 주축이 되어 창작하고 있다. 1970년에 처음으로 창작되었으며, 1973년에는 김정일 송가문학이 20여편 창작되었고, 1974년에는 김정일을 칭송한 송가시집 『2월의 송가』가 발표되었다. 현재 김정일에 대한 ‘수령형상’ 문학작품 시리즈는 ‘불멸의 향도’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다. 임순희 2001, 30~31.

6) 노동의 전투화를 주장한 사람은 레온 트로츠키이다. 그는 “노동의 군대화는 우리 노동 조직을 위한 불가결하고도 기본적인 방식이다. 강제노동은 항상 비생산적인가, 이는 자유주의자들의 편견이다. 노동 강제, 규율, 군대화는 단순히 긴급 조치가 아니다. 노동자 국가는 정상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노동 수행을 강제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트로츠키의 정책은 레닌의 완전한 승인을 얻었고 스탈린주의의 출현으로 그 노동 모델은 현실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노동관에 입각해 소련의 콤소몰 대원들은 노력경쟁운동에 적극 동원되었다. 콤소몰 대원이 주축이 된 노동집단이 그들의 작업 할당량을 초과 달성하기 위한 브리гада(작업반)를 조직했던 경쟁운동으로 돌격대 역할이 본격화되었다. 차문석 2002, 38.; 215.

년돌격대에게 주어지는 경제건설 임무는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정치사상생활, 도덕생활에서의 성장은 이루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청년돌격대원이 되어 중요한 공사를 맡아 몇 번 참가하게 되면 일부 돌격대원들 속에서 나타나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유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가 확연히 극복된다는 것이다.(조선청년사 1969, 138)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해 청년돌격대는 한 사업이 끝나도 해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군대와 같은 정규화된 조직체계로 운영되는 청년돌격대를 결성한 것이다.

새터민 A7)는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대해 군대를 갈 수 없는 성분의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단언적 평가를 한다. 그는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조직으로 청년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군대를 통해 통제하지만 군대에도 못 가는 ‘애매’한 성분을 가진 청년들은 속도전청년돌격대를 통해 통제한다고 평가한다.

셋째,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에서 김정일의 대중지도력 확보를 위해 청년들의 조직적 활용이 필요에 의해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조직되었다. 김일성은 197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권력 승계자로 공식화하였다.(로동신문 01/12/24) 이후 김정일은 사회 전 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들을 3대혁명소조로 조직하여 전국 각지로 파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권력후계자로 부각하게 되었다.(최대석 외 2006, 109) ‘젊은’ 권력후계자였던 김정일이 동세대인 청년들을 3대혁명소조와 속도전청년돌격대 조직하여 활용한 것이다.

7) 새터민 A는 1998~2003년간 평안남도 청년동맹 총무부에서 근무하였다.

2. 조직 체계와 운영

북한에서 국가의 주요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비롯해 당원돌격대, 조선인민군의 건설부대 등이 있다. 당원돌격대는 중앙당 직속 조직으로, 일명 ‘105 돌격대’로 불리며 속도전청년돌격대보다 더 정예화 된 조직으로 추정된다.(안동춘 1999, 193) 조선인민군 건설부대는 북한군 공병국과 건설국 소속으로 약 20개 정도의 여단들이 있다. 북한군 공병국 및 건설국 부대들은 고속도로, 해안 방어진지, 전방 방어진지, 비행장, 댐, 아파트, 대규모 공장 건설처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진행하며 주석궁, 당 중앙청사, 주요 국가 건물, 지하 요새의 공사는 사회안전부 소속 공병국 여단과 조선인민경비대 공병국 여단이 맡아 진행한다.(이정연 2007, 193)

속도전청년돌격대의 대원들은 주로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대한다.⁸⁾ 대다수 신입대원들은 원칙적으로 대학진학 예정자와 군 입대 예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들 중에서 학교 추천을 받은 뒤에 군 청년동맹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신체검사를 거쳐 합격할 경우에는 중앙급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도급으로 배속된다. 학교별 입대자수는 상부에서 할당되어 내려온다. 소수의 신입대원들은 사회의 직장 노동자들로 충원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정한 기술 소유자로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이거나 입당을 위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이다.(최봉대 200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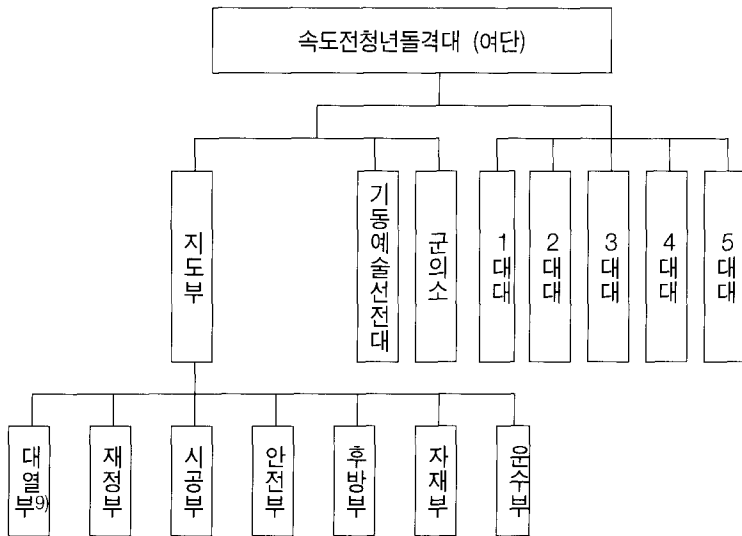
청년돌격대원의 입대 이유는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입대자들이 북한 사회에서 제일 힘없고 뺨 없고 군대도 못 가는

8)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자원입대하는 고등중학교 학생은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시에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학생은 “속도전청년돌격대를 탈원한 동무들은 조국보위는 걱정하지 말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나 앞장서 달라”고 하였다. 로동청년 95/08/11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 대원들의 경우 북한 사회에서 ‘사람구실’을 하기 위해 당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출구’로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선택하지만, 간부의 경우는 대대장과 대대 정치지도원부터는 평양시 거주권을 가지는 등 사회적으로 출세를 보장받는다. 돌격대원들의 복무 기간은 초기에는 남자 5년 여자 3년이었던 것이 10년으로 연장되어, 보통 남자의 경우 17세에 입대해서 27세에 제대하며, 여자의 경우 17세에 입대하여 23~25세에 제대한다.(이애란 2005, 68)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조직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속도전청년돌격대 조직도



자료: 이애란. 2005. “북한의 제2전선돌격대(전 속도전청년돌격대원 이옥화 증언)”. 『통일한국』3월호. 66~69.10)

- 9) 대열부는 간부를 제외한 대원들의 입대와 제대를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로 우리의 경우 인사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속도전청년돌격대 간부 출신인 새터민 B 씨는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아버지(대남당당 35호실에서 근무)를 따라 1999년도 탈북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에 후방간부 양성 차원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배치 받아 보위소대장, 중대 정치지도원, 여단 선전선동지도원으로 약 4년간 활동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산하의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총국에 소속되어 있다. 돌격대는 군사조직과 같이 여단-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제되는 특징을 가진다. 돌격대는 지도총국 산하 12개 여단으로 구성되며 한 여단은 약 2천명으로 구성되며, 규모에 따라 5~7개의 대대로 이루어진다. 1개 대대는 약 3개의 중대, 각 중대는 3개의 소개로 이루어진다.¹¹⁾ 즉 속도전청년돌격대 중앙에만 상시적으로 2~3만 명의 돌격대원들이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 청년동맹의 여단은 정치부, 참모부, 후방부 등의 부서가 있으며, 4개 대대 약 1,40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편집부 2005, 168~170) 도 청년동맹여단장은 중앙 청년동맹의 지도원급에서 임명되며, 대대장은 도 청년동맹 간부들도 임명된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대원들의 직급도 전사에서 대좌까지 군사 칭호를 부여하고 평시에도 군대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유사시에 는 즉각 정규군으로 편입시켜 공병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군대식 조직체계와 방법으로서의 노동동원과 통제는 노동력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신광민 2003, 186~190)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단기간에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서 각종 대중운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로현상’을 가중시켜 가장 수동

10) 새터민 B씨는 여단 지도부(지휘부)는 참모부, 정치부, 후방부로 구성된다고 증언한다. 그에 따르면 참모부에는 대열부, 재정부, 시공부, 안전부, 자재부 등이 있으며 정치부에는 기동예술선전대, 간부지도원, 선전지도원, 조직지도원, 종합지도원이 있으며, 후방부에는 재정부, 식량부, 후생부가 있다고 한다. 조직 체계에 대한 새터민 B의 증언과 이옥화의 증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11) 이애란 2005, 66.; 다른 자료에서는 중앙의 지도총국 산하에 14개 여단과 지방 각 도 청년동맹위원회 산하 11개 여단이 있어 총 25개 여단이 있다고 한다.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실상”, <http://www.nis.go.kr/app/north/news/daily/view?dataNo=18127&viewNo=18127>(검색일: 2007년 3월 12일)

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김용현 2001, 139)

1983년 3월에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모범중대’ 운동이 발기되었으며, 11월에는 초급지휘관양성소를 새로 만들어서 청년돌격대의 조직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 여단을 신설하여 인력동원에 의존하던 방식에 대한 탈피를 시도하였다.(금성청년출판사 1997, 427)

Ⅲ.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역할

1. 당과 수령의 건설부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대중운동 방식은 일반적 현상이었다. 코르나이(Kornai)는 고전적 사회주의(Classic Socialism)에서는 체제특징적인 성장유형인 ‘강제된 성장’(forced growth)을 “사회 내의 총괄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성장 속도의 가속화가 관료기구에 의해 위로부터 강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Kornai 1992, 160~163) 사회주의 사회에서 초기에 추진하는 강제된 산업화 전략은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발전전략과 같은 것이다.

돌격대 운동의 원형은 소련의 내전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것은 1920년대 후반이다. 스탈린은 내전이 끝나자 군대에 동원되었던 청년들을 산업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차 5개년 계획 기간(1928~1933년) 동안 콤포트를 산업전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돌격대로 급속하게 변모시켰

다.(Ann todd baum, 23~24) 즉 북한 청년돌격대의 전형(prototype) 또한 소련 내전기간 형성된 돌격노동(shock work)에 있다.¹²⁾

북한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 구상을 맨 앞장에 서서 실현해 나가는 정규화된 전투적인 노력부대이며 보람찬 실천투쟁 속에서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우는 훌륭한 혁명학교”로 규정하고 있다.(김정일 1997, 11)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이란 작업량이 많고 작업조건이 불리한 환경에서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부문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부문은 대담성과 용감성, 민감성을 지닌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손기학 1986, 40)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중요대상건설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내린다.

속도전은 전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개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전시노동체제가 그 기원이라는 주장이 있다.(최성 1997, 86~91) 노동력에 대한 강제적 동원과 엄격한 노동 규율을 강조하는 점, 군대의 체계와 용어 등을 사용하는 점들을 대비시켜 설명할 수 있다.(이창현 2003, 64) 전쟁의 경험과 함께 천리마운동의 경험과 성과도 속도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속도전이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탁진 외 1984, 125)

1980년 김일성은 북한 북부지역(양강도 혜산-자강도 만포)의 철길건설 임무를 속도전청년돌격대에게 부여하였다. 북부철길공사는

12) 소련의 노동자 당원이었던 V.M. Emel'ianov는 1920년 봄에 모스크바(Moscow)-블라디미르(Vladimir) 구간의 무롬(Murom)지역의 노동자들 사이에 자발적 노동을 수습하고자 시도한 것이 기원이 되었다. Joseph L. Wiczynski 1983, 23.; 소련의 우랄 중공업의 노동자인 미하일 포포브(Mikhail Popov)는 1941년 10월 전투적인 콤포소물 생산팀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할당 된 의무, 고도의 단련, 동지적 지원을 다 하는 전투와 같은 노동(in work as in battle)을 주창하여 콤포소물의 모토(motto)가 되었다. Andrei Andreyev, 127.

북한경제에 있어 북부산간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공사였으나, 공사의 방대함과 강추위 등으로 인해 어려웠다. 김일성은 속도전청년돌격대 전체 조직을 동원하여 이 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금성청년출판사 1997, 425~426) 1990년대 후반에는 김정일이 청년동맹에게 평양-남포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부여하였다. 1998년 11월 김정일의 지시¹³⁾로 과업을 받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1년 11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조선노동당 창당 55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10월 10일 완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건설 사업에는 연 5만 명의 전국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북한사회 전체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청년영웅도로’¹⁴⁾를 건설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북한의 활용가능한 노동인구들 중 가장 육체적으로 왕성한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문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북한사회 운영 매커니즘의 근간이 되는 수령제 강화를 위해 왕재산, 삼지연, 어은 등 여러 곳에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를 건설하였으며, 철도전기화공사와 동평양화력발전소와 같은 주요 산업시설도 건설하였다. 즉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실현하는 실천투쟁을 통해 청년들을 교양하고 단련하여 당의 청년전위”로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로동청년 90/05/16)

13) 새터민 A의 증언에 따르면 최룡해 청년동맹 제 1비서가 비리 혐의로 숙청된 후 청년동맹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청년동맹에게 고속도로 건설 과업을 부여했다고 한다.

14)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평양-남포 고속도로의 이름을 ‘청년영웅도로’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0/10/12.

2. ‘청년전위’¹⁵⁾ 육성

전위대는 “일정한 사회적 집단이나 계급의 앞장에 서서 투쟁의 앞길을 헤쳐 나가는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나 조직”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출판사 1992, 163) 즉 청년전위는 청년들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하기 위해 어느 계급·계층보다 앞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경제건설의 ‘선봉대’ 역할과 함께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장(場), 조직생활 단련의 장(場), 초급간부 양성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리형섭 1987, 47)

북한은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대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근본 목적으로 제기하고 당의 속도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활동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술 역량과 수단을 갖추고 군대와 같은 조직체계와 명령체계에 따라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금성청년출판사 1997, 411) 즉 속도전은 사상전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운영 원리에는 ‘혁명실천을 통한 교육’이라는 북한의 교육원리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¹⁶⁾ 즉 북한은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며 이론발전의 추동력이

15) 2002년 3월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규약에서 청년동맹을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의 영도자를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청년전위조직”으로 규정하였다. 로동신문, 02/03/23.

16)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은 소련의 종합기술교육론과 유사하다. 종합기술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산의 기초에 대해 알게 함으로써 생산의 일정한 영역과 다른 영역들과의 기술적·경제적 상호관계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해 나가는 능력을 얻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 “생산노동에 치중한 나머지 교과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나 재조정되었다. 1966년 3월 제23차 전소공산당대회 중앙위원회에서 브레즈네프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완성과 정치·경제·문화적 발달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종합기술교육은 학교외부의 노동경험보다는 학교 내의 과학적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박태성 2002, 237~244.

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에게 실천능력을 키워주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일성 1986, 381) 즉 자본주의사회의 교육에서 교육과 실천의 분리가 중요한 특징인 것에 반해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최금순 1978, 48)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이 노동을 통해 ‘청년전위’로 육성되기 위해 청소년 시절부터 경제적 동원을 ‘학습’한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좋은일하기운동은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사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김일성의 발기에 의해 소년단 조직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대중적인 학생들의 운동이다.(홍영표 외 1994, 146) ‘꼬마계획’은 “소년단원들이 좋은일하기운동의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92, 1156.)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학생들을 어린시절부터 사회적 노동과 공동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학교 청년동맹 조직들에게는 학생들에게 10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권장한다. 10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은 나무심기 운동, 길 닦기 운동, 꽃 심기 운동, 땅 애호운동, 토끼 기르기 운동, 외화벌이 운동, 인민군대 원호 운동, 전사자·후방가족 원호 운동, 학교와 마을 깨끗이 하기 운동, 파리·모기·참새·쥐잡기 운동이다.(로동청년 71/03/20)

IV. 속도전청년돌격대 성과와 한계

1. 체제수호의 선봉대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성과는 조직 결성 목적에 근거하여 경제적 성과와 인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경제적 성과는 <표 2>와 <표 3>과 같이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수행하고 있는 정치적 역할, 즉 단순한 ‘노력 부대’가 아니라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역할에 대한 계량적 평가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였다.

〈표 2〉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성과 (1)

노력동원·공사명	공사지역	공사기간	주요내용
철도전기화 공사	평양·마동	1975. 2. ~ 4.13.	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 건설자들이 충성의 속도 정신을 발휘하여 2달 만에 완공하여 속도전청년돌격대 창립의 전행이 되었음.
북부철도 건설사업	자강도 만포·함북 무산	1980. ~ 1988.	1단계 250여 km, 낙후한 북부오지의 산업개발 촉진과 수송능력 향상을 위해 군병력 2만 철도건설연대, 청년돌격대 5만 명이 투입된 공사
서해갑문	남포시·함남 송관리	1981. ~ 1986.9.	4대 자연개조사업의 하나로 당호 3년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청년돌격대와 군인들을 투입하였지만 기술상 늦어져 1986년 6월 4일 완공함.
철도전기화 공사	백암·유곡	1990. 12. ~ 1991. 8.	4,000여개의 전주, 82.1km 전기줄 설치, 4개 변전소, 10개의 다리 건설 공사.
북부철길 전기화공사	해산·만포선	1992. ~ 1993. 2.	백두산청년돌격대와 철도건설자들이 1년 동안 10여만입방미터 토량공사, 7,500여평방미터 웅벽공사, 5,000여개 전주, 10여개의 변전소, 255.5km 전기공사를 완료
원산·금강산 철도공사	원산·금강산	1989. ~ 1997. 4.	“1958년 해주·하성 청년건설자처럼 살며 투쟁하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철도 공사 진행. 90년대 초반 경제난으로 공사를 중단하다가 90년대 중반에 공사를 재개. 1997년 김일성 85회 생일을 맞추어 완공. 총길이 110km, 17개의 역사를 건설.
라선청년발전소	라선	2003 ~ 2005. 2.	함경북도 자유무역지대인 라선 지역의 청년발전소 1,2호기와 저수지 공사를 완료.
청년영웅도로	평양·남포	1998. 11. ~ 2000. 10.	김정일의 지시로 청년돌격대원들이 평양·남포간 46km, 왕복 12차선의 고속도로 공사를 완공함. ‘강성대국 대통령’로 부를만큼 청년돌격대의 대표적인 공사로 꼽힘.
개천·태성호 수로공사	개천시 대각리·남포시 강서구역	1999. 11. ~ 2002. 10.	곡창지대인 평안남도 서부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과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공사 구간 160km의 수로공사이다. 1999년 11월 9일 착공식 개최하여 2002년 10월 완공.
강계·랑림	자강도 강계시·	2000. 4. ~	1999년 김정일이 랑림군을 현지지도하면

전기철도화공사	량림군	2000. 10.	서 강계-량림간 철도 전전화 공사를 청년동맹에게 건설하도록 지시하여 2000년 4월 7일 착공하여 10월 완공
3만 가구 주택 건설 공사	평양	2001. 4. ~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건설 완공 후 그 주변 지역과 통일거리, 광복거리 9·9절 거리에 주택 3만호 건설 공사를 착공.
원산 청년발전소	원산	2002. 11. ~	강원도 지역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김일정일의 지시로 건설 시작.
백암발전소 (선군청년발전소)	량강도 백암군	2002. 10. ~	청년영웅도로 건설처럼 선군시대 청년들의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선전할만큼 청년동맹의 주요 건설사업임. 처음에는 백암발전소로 명명했다가 김정일의 지시로 선군청년발전소로 개명.
외증발전소	자강도	~ 2003. 3.	청년돌격대원들이 1만 4천여 m ³ 콘크리트 공사 및 3만여 m ² 의 굴착작업 수행
어랑천발전소	함경북도 어랑군	1988 ~ 2006. 4.	1988년 착공된 대규모 수력발전소 공사, 2000년 김정일 시찰 후 본격적으로 건설.
남포시 간석지 개발	남포시 대동강 유역	2005. 12. ~	남포시 도지리와 지사리등 일대 1천여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공사. 간석지 개간과 함께 40km 물길, 10여개의 양수장, 80여개의 구조물, 수백세대의 주택도 함께 건설

자료: 김종수 2005, 270.; 금성청년출판사 1982; 로동청년, 로동신문 등을 토대로 작성

〈표 3〉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성과 (2)

구분	1990년 ¹⁷⁾	1995년	2003년	2005년
경제 성과	- 14개의 철길 및 철도 전기화공사 - 인민대학습당, 국제친선전람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154개의 창조물	- 백두산, 왕재산 을 비롯한 16 개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 2,400여km의 철길 및 철도 전기화 공사 - 12개의 과외교 양기지 - 150여개의 창조물 건설	- 왕재산, 삼지연, 어은, 회령 등 10여곳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 2천여km의 철길 및 철도전기화공사 - 동평양화력발전소와 같은 49개의 주요 산업시설 - 인민대학습당, 평양제1백화점, 청년호텔, 창광원, 청년영웅도로와 같은 수십개의 창조물 -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의 주택 건설	- 19개의 철길 및 철도 전기화공사 - 70여개의 건축물과 새거리 건설 - 13개의 청소년과외교 양기지 - 수백 개의 창조물 건설
인적 성과	- 11명이 노력영웅 - 83명이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¹⁸⁾ - 2만 6천여 명이 국가 표창 - 1만 500여 명이 당원으로 가입	- 15명이 노력영웅 - 98명이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 - 3만 4천여 명이 국가 표창 - 1만 593명이 당원으로 가입	- 20여명이 노력영웅 - 110여명이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 - 수만 명이 국가 표창 - 1만 수천 명이 당원으로 가입 - 1만 천 수백 명이 금성정치대학을 비롯한 대학에 입학	- 20여명이 노력영웅 - 120여명이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 - 39,260여명이 국가표창

자료: 리형섭 1990, 28-29.; 로동청년 90/05/18, 95/05/16; 조선중앙통신 03/08/27; 로동신문 05/05/16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경제부문 성과의 유형은 교통망 건설, 혁명전적지·사적지, 야영소 건설, 발전소 및 공장 건설, 주택건설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북한 청년들의 노력동원은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과 혁명전통에 대한 체험교육 방식의 사상교육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창립 후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김일성·김정일 관련 혁명사적지 49개¹⁹⁾ 중 16개를 건설하여 청년들의 노력동원을 통한 혁명전통 수립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속도전청년돌격대 활동을 통해 ‘노력영웅’이 된 청년들이 20여명,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자는 120여명, 국가표창 수여자가 4만 명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력영웅은 경제·문화·건설부문에서 우수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서 ‘공화국영웅’ 다음의 ‘영예로운’ 상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노동당은 당원의 양보다는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군에서도 당원 배정을 적게 하여 일반 부대원들 중 40% 정도가 입당을 못하고 제대하게 되었다.(이정연 2007, 42) 이에 반해 중앙과 도의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상시적으로 3~4만 명으로 구성되는데 창립한 지 20년이 되는 시점인 1995년에 1만 수천 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은 군대에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청년들의 비율보다

17) 구분의 해당연도는 ‘꺾여지는 해’로 창립기념일에 맞춰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성과를 보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단 2003년 자료는 ‘청년절’을 기념한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1990년 자료는 리형섭의 논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인적 성과 부분은 로동청년 90/05/18 기사로 보완하였다.

18) 김일성청년영예상은 1972년 1월 8일 내각결정 제1호로 승인되었다. 이 수여 규정은 총 7조로 구성되었다. 이 상은 사로청 단체와 사로청원과 간부들에게 수여함으로써 청년들을 수령의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교양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중앙통신사 1972, 93.

19) 김일성 관련 혁명사적지로는 만경대혁명사적지, 왕재산혁명사적지, 백송혁명사적지 등 34개가 있으며, 김정일 관련 혁명사적지로는 어은혁명사적지, 장자산혁명사적지, 백두산혁명사적지 등 15개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1999, 374~376 참고.

낮다고 볼 수는 없다.(이애란 2005, 67)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청년들을 국가 기간산업과 ‘우상화’를 위한 사적지 건설에 동원하여 경제적 실익과 함께 사상·조직 생활을 통제하여 체제수호의 선봉대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돌격대 활동에서 ‘공로’가 인정되면 북한 사회의 주류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체제이탈을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 속도와 질의 불균형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인 속도전은 원초적인 문제점을 갖는다. 북한에서는 속도전에 대해 “빨리 나간다고 하여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낮추는 것은 다 속도전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현준명 1974, 55)라고 선전을 한다. 그러나 속도전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인적 자원을 비롯한 물적 자원의 집중적 투자를 낳게 된다. 즉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심 사업에 집중 투자를 통해 한 부문을 추켜세우면 투자에서 배제된 다른 부문이 침체된다. 김정일이 주도한 ‘70일 전투’에 대해 경제 간부들은 “물론 70일 동안 모든 자원과 노동력을 집중하면 특정한 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를 70일만 하자는 얘기인가”하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²⁰⁾(임영태 1999, 108) 즉 ‘속도전’이 불균형 투자로 인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이태섭 2001, 370)

북한에서도 ‘속도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이 2005년 5월 강원도 청년발전소 건설 현장을 시찰하

20) 전 조선노동당 비서 황장엽도 ‘70일 전투’에 대해 경제적인 고려 없이 무작정 속도전이라거나 전격적의 구호를 내걸고 인민들을 내몰아 설비를 무시하고 원가를 무시하여 각종 자재와 노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김정일이 기초적인 경제적 원리마저 무시하여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차질을 주었다고 비판하였다. 황장엽 1999, 230.

면서 “완공날짜를 기념일에 맞추려고 공사속도만 올리려 하지 말고 기술 공정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해 건설물의 질을 최상 수준에서 보장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05/06/15)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북한의 문헌에서는 ‘속도’와 ‘질’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해 조직·운영되고 있는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기존의 청년돌격대를 정규화 함으로써 사상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자의 불균형 투자로 인해 만성적인 불균형과 비효율을 파생시켰다. 즉 김정일의 후계체계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가 희생되는 현상을 낳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시대에 맞게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 때 성과가 결정된다고 강조한다.(리형섭 1990, 27)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저급한 기술이 요구되는 기초골조공사, 기초 미장공사와 같은 작업공정을 분담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토목공사장의 단순 육체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최봉대 2001, 18) ‘청년영웅도로’ 건설 과정에서 북한 청년들은 망치로 산을 부수고 도로를 건설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노동력의 집중을 통한 건설방식이 속도전청년돌격대의 특징이 되어 이에 걸맞는 기술발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비와 기술이 열악하여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완공 시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가 이어질 경우 부실화 위험성도 지적할 수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장기적인 고립생활과 보급 부족으로 인해 민가에서 술과 가축들을 훔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북한 청소년들이 ‘패거리’ 문화를 배우며 빠져드는 계기가 돌격대

활동에서라고 한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선발초기에는 ‘말썽꾸러기’인 청년들이 모인 집단에서 문제점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 돌격대에서 익힌 패거리 문화는 돌격대 제대 이후에도 ‘폭력조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김승철 2000, 63~65) 이에 북한 주민들은 청년돌격대를 ‘마적부대’로 여기고 있으며, 군인들조차도 근접하기 싫어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북한 경제건설에서 단기적·외형적으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만성적인 단순노동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노동의 질적 발전을 늦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 메달 수여 규정²¹⁾을 제정한 것을 통해 볼 때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창립된 1975년은 북한정치사에 있어 ‘격

21) 속도전청년돌격대복무메달을 제정함에 대하여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의 앞장에서 투쟁하는 정규화 된 전투적인 부대이며 실천 속에서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조직적인 부대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지난 기간 정춘의 열정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로동당 시대를 빛 내이는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불패의 기상과 전투적위용을 힘 있게 떨치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고 있는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속도전청년돌격대복무메달을 제정한다. 2. 속도전청년돌격대복무메달 수여규정과 그림틀이를 승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5(2006)년 5월 10일” “속도전청년돌격대 복무메달을 제정”, 조선중앙통신, 06/05/15.

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967년 당 제4기 15차 전원 회의를 계기로 북한에서 유일체제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로, 유일체제 형성과 수령의 후계를 위해서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추구를 추구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통제 또한 필요했던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동요계층의 청년들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교육함과 동시에 경제적 실익도 추구하는 속도전청년돌격대를 건설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구상을 맨 앞에서 실현해 나가는 전투적인 노력부대,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내는 정치부대, 유사시에는 손에 총을 잡고 싸울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당의 통제에 철저히 종속되고 있는 것은 군대와 같이 격리된 생활공간에서 엄격한 조직생활과 사상교양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신성분으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든 돌격대원은 돌격대 활동을 통해 당원이 되고자 노력한 면도 있다.

오늘날 북한의 위기상황에서도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은 변화에 민감하여 사회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청년들을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비롯하여 인민군대, 청년동맹을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여 체제이탈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열성대원들에게는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배체제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체제에 대한 좌절과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즉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북한체제 유지에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 운영방식이 언제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출세를 위한 입당보다는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증언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장기간 ‘전투’와 같은 노동을 벌여 당으로부터 인정받는다 고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발적 충성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성청년영예상”수여에 관한 규정”. 조선중앙통신사. 1972. 『조선중앙연감 197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속도전청년돌격대”의 노력적 성과”. 『조선중앙통신』(2003년 8월 27일).
-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실상”. <http://www.nis.go.kr/app/north/news/daily/view?dataNo=18127&viewNo=18127> (검색일: 2007년 3월 12일)
- “북, 건설부문도 ‘속도’보다 실리”. 『조선일보』(2005년 6월 15일)
http://www.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_id=4&res_id=64856&page=5 (검색일: 2007년 1월 10일)
- “속도전청년돌격대 복무메달을 제정”. 『조선중앙통신』(2006년 5월 15일)
-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2007년 1월 1일)
- “중학교 사로청사업을 더욱 개건강화하자”. 『로동청년』(1971년 3월 20일)
- “축하문-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과 지휘관들에게”. 『로동청년』(1990년 5월 16일)
- “태천의 기상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일으켜 나가자”. 『로동신문』(2007년 1월 27일)
- 『로동신문』(2001년 12월 24일)
- 『로동청년』(1990년 6월 22일)
- 『로동청년』(1995년 8월 11일)
- 『조선중앙통신』(2000년 10월 12일)
- 『조선중앙통신』(2007년 1월 23일)
- 강근조. 1991. 『조선교육사』4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국가계획위원회 중앙 통계국. 1961.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 국사편찬위원회. 1996. 『북한관계 사료집』 2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금성청년출판사. 1997.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령도사』.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김승철. 2000. 『북한 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인천: 자료원.
- 김용현. 2001.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김일성. 1986.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김일성 저작집』 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7.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사로청 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8월 26일). 『김정일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종수. 2005. “북한의 위기대응 전략: ‘청년중시’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43호.
- 리형섭. 1987.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적 역할과 청년돌격대운동”. 『근로자』 546호.
- 리형섭. 1990. “우리당이 발기한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 위력한 대중운동”. 『근로자』 577호.
- 박태성. 2002. “소련 사회주의 교육의 허와 실”. 한국슬라브학회. 『슬라브학보』 제17권 1호.
- 백남룡. 2002. 『계승자』.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 백치봉·리철호. 199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말 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손기학. 1986.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근로자』 534호.
- 신광민. 2003.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안동춘. 1999. 『평양의 봉화』.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 연합뉴스. 1999. 『북한용어 400선집』. 서울: 연합뉴스.
- 연형묵. 1976. “속도전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전투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근로자』 406호.
- 이애란. 2005. “북한의 제2전선돌격대”. 『통일한국』 2005년 3월호.
- 이정연. 2007.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 이정철. 2002.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창현. 2003. “북한 속도전의 특징과 기원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 이태섭. 2001.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 임순희. 2001.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임영태. 1999. 『북한 50년사』2. 서울: 들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1960. 『해방 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70.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청년사. 1969. 『청년들의 혁명화를 위하여』. 평양: 조선청년사.
- 차문석. 2002.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출판사.
- 채종완. 1990. 『청년사업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최금순. 1978.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근로자』 433호.
- 최대석·김중수. 2006. “북한 권력승계시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9권1호.
- 최봉대. 2001. “북한의 속도전청년돌격대와 체제유지 기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49호.
- 최성. 1997. 『북한정치사』. 서울: 풀빛.
- 최영표·한만길·홍영란. 1994. 『내가 받은 북한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탁진·김강일·박홍제. 1984. 『김정일 지도자』제2부. 출판지 미상: 동방사.
- 편집부. 2005. “북한 함경남도 청년동맹 실태”. 『북한』407호.
- 황장엽. 1999.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 현준명. “‘속도전’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 『근로자』 384호.
- Andrei Andreyev. 1980. *The Komsomol: Question and Answers*. Moscow: Progress Publisher.
- Ann todd baum. 1987. *Komsomol Participation In The Soviet First Five-Year Plan*. New York: St. Martin's Press.
- Joseph L. Wiczyński. 1983.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35*. Fl.: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 Kornai.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f North Korean Speed Battle Youth Shock Guard

Kim Jongsu

Doctor of Politic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peration system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Speed Battle Youth Shock Guard. This work will illuminate how the Speed Battle Youth Shock Guard go far forward stabilizing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 Korean youth in the period of Songun politics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leading the North Korean economy. Young people in North Korea has a majority in the labor supply and been asked to perform critical activities as a "vanguard" or "shock troop" in building economy. Therefore, 'Kim il-sung Socialist Youth League, the only young man's mass organization, operates the Speed Battle Youth Shock Guard as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construction of economy. The Speed Battle Youth Shock Guard, established in 1975 under the direction of Kim il-sung, has constructed nation's important facilities and factories. Especially in the time of 'a march full of hardship' the North Korean young men implanted 'hope' in the people by devoting all their energies to construction of 'Youth Hero Highway.'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the Speed Battle Youth Shock

Guard has become a crucial base of Kim jung-il's regime by playing important roles in not only mobilizing the youth but also enlightening and training them. To promote the youth as vanguards of the Party, the Speed Battle Youth Shock Guard has educated and controlled them through rigid military rules and systems.

Key Words: Youth League, League of Socialist Working Youth,
Speed Battle Youth Shock Guard